

문제점이 많은 표준어대사전

조재수

한글토피아. 한국어 전자사전 편찬실

I. 머리말

좀 지나친 말일지 모르나, 한 사전을 자세히 살펴보고 평한다는 것은 그에 버금가는 사전 하나를 새로 편찬하는 일과 마찬가지로 생각된다. 사전 편찬이란 그 민족 삶의 자취인 말 하나하나를 분석하여 정리하는 일이다. 사전 편찬에서 기본 어휘 하나를 풀이하는 일은 논문 한 편 쓰는 일거리에 뒤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 '풀이'는 말 하나에 대한 편찬 내용 모두를 말한다). 영국 『옥스퍼드 영어 사전』과 그림 형제 및 그 후계자들이 편찬한 『독일어 대사전』을 보고 느꼈던 생각이다. 특히 그림 형제의 사전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언어 박물관이다. 오늘날 말하는 거대한 말뭉치(코퍼스)이되 정확하고 정리된 말뭉치라 하겠다.

이번에 국어연구원이 펴낸 우리나라 최대인 국어대사전을 몇 십 매의 글로 살펴본다는 것은 수박 겉 핥기 식의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차라리 그 사전 편찬원들과 모여 앉아 직접 얘기하는 편이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어 좋을 듯싶다. 눈에 띄는 대로 몇 가지만 간략히 짚어 보기로 한다. 따라서 인용도 되도록 줄여서 보이기로 한다.

II. 사전 속 살펴보기

1. 사전의 규모와 성격

8년간 112억 원의 연구 개발비로 50여 만 말을 거두어 7,328쪽에 담은 대사전이다. 일반어 이외 19만 전문어(고유명사 포함)와 북한 문화어 7만을 함께 다루었다. 그러니까 언어사전, 전문술어사전, 백과사전 등을 겸하는 종합 대사전이다.

한 곳에서 온갖 언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면 이상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정보는 값싸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때그때의 새 정보를 빨리 얻어 볼 수 있어야 한다. 책사전, 그것도 대사전 같은 데서 그러한 욕구를 충족하기란 쉽지 않다.

먼저 비용으로 보자. 이 대사전 편찬과 발간에 112억 원이 들었다. 이 사전에 앞서 10년도 채 안 되는 시기(1990년대)에 40만 어휘가 넘는 비슷한 규모의 대사전이 이미 학회에서 하나, 출판사에서 둘이 나와 있었다. 이들 네 가지 대사전의 출판 비용을 합치면 엄청난 돈이다. 1988년에 발표한 새 어문 규정 때문이기도 했지만, 짧은 기간에 비슷한 일로 그렇게 많은 노력과 돈을 들인 셈이다. 이 대사전의 값은 27만 원이다. 학생이나 일반 사전 이용자들이 사 보기는 어려운 가격이다. 이는 곧 이용 가치를 그만큼 잃는다는 뜻이다. 또 사전 이용면에서 보자. 수천 쪽의 책사전을 찾아본다는 것은 불편한 일이다. 전문 분야 종사자들은 국어사전보다 전문술어사전이나 백과사전을 더 이용할 것이다. 또한 대사전은 수정 증보 간행이 쉽지가 않다. 수천 쪽의 책이 다 팔리기 전에 고쳐 찍는 데 드는 비용을 생각해 보면 알 일이다. 그러니까 새 언어 정보를 책사전 특히 대사전에서 제때 반영하기란 쉽지가 않다.

여기서 다시 사전 편찬의 전문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사전 편찬 연구 및 업무의 전문화와 사전 갈래의 전문화이다. 우리도 정보 시대의 빠른 언어 정보 수용을 위해서는 언어사전, 전문술어사전, 백과사전 등

의 편찬이 각각 따로 서야 하고 그 결과물이 그때그때 사이버 공간에서 공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바로 전자사전 편찬의 길이요 전자사전 이용의 길이다.

이 대사전은 정부에서 직접 편찬한 사전이라 했다(발간사에서). 또 국립국어연구원의 국가적 권위를 실어 만들었고(열 가지 특징의 첫째), 우리나라 어문 정책 관련 연구를 주관하는 기구에서 편찬한 국가 표준 국어사전이라 한다. 사전 편찬을 두고 이처럼 정부나 국가적 권위를 내세우는 나라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

‘표준’이란 말은 아껴 써야 한다. 표준이란 권위는 어떤 분야에서고 자칫 저항과 부작용을 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잘못된 표준, 미비한 표준, 일방적 표준일 때는 더욱 그렇다. ‘규범’이라는 말도 그렇다. ‘규범사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뜻풀이 사전에 규범사전 아닌 것이 있을까? 참고로 덧붙이는 말이지만, 북한에서 규범사전은 이른바 ‘언어 사용의 규범화와 통제적 기능’을 내세우는 ‘통제사전’을 가리킨다.

사전에서 표준의 범위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맞춤법과 표준어와 발음들에 대한 표준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어와 관용구의 형태(‘물 쓰듯 하다(관용)’, ‘물샬틈-없다(형)’ 따위) 및 어원과 말의 뜻매김 같은 풀이에까지도 적용하여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표준이라는 권위로 말미암아 이용자들이 국어연구원 아닌 여러 곳에서 편찬 발간한 사전들은 표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하기를 꺼려 한다면 우리 사전 출판업계는 어떻게 될까. 국가 연구 기관에서 나라 말글의 표준(규범)을 세울 만한 사전을 편찬한다면 당장 백과사전을 겸한 방대한 대사전을 편찬할 것이 아니라, 먼저 ‘표준말과 맞춤법 쓰임새 사전’ 같은 것을 면밀히 편찬하여 국민에게 널리 보급해야 할 것이다.

사전 편찬에서 밑자료라면 기존의 국어사전들이다. 그런데도 이 사전 일러두기에는 옛 문헌은 밝히면서 기존 국어사전들에 대한 참고 문헌은 제시하지 않았다.

책을 매는 방법에서도 일반어 및 전문어 사전과 인명과 지명 사전을 판책으로 분리할 수도 있었겠다.

2. 올림말과 배열

‘올림말’이란 용어는 최현배 선생이 『우리말 큰사전』 일러두기 초안(1968)에 썼던 말이다. 사전은 수많은 말을 다루는 문헌이므로 찾아보기 쉽고 체계가 일정하게 엮어야 한다. 대사전은 부피가 크므로 더욱 그렇다. 단어(단일어, 파생어, 합성어)의 경우 일괄 자모순으로 배열하는 것이 보통이다. 사전의 주된 올림말이 단어이기 때문이다. 이 대사전에서는 일부 파생용언과 파생부사 따위를 딸림올림말(부표제어)로 다루어 기본 자모 차례에서 벗어나 찾아보기가 불편하다. 대거 발굴했다는 새 어휘가 어떤 종류의 말들이고 또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기존 사전에서 다룬 새 어휘나 몇몇 작가 어휘집을 베끼는 수준이어서는 미흡하고, 그야말로 독창적으로 찾아서 다룬 말이 많아야 그 노력이 인정될 것이다.

북한 문화어 다루기에 대하여 : 북한의 『조선말대사전』(1992)에 실린 7만의 북한 문화어를 실었다고 한다. 일반어 이외 북한의 학술 용어도 꽤 포함시킨 듯하다. 민족 언어 통일을 위해 북한어를 다루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사전 본문에다 북한 사전의 어휘와 풀이를 그대로 옮겨 놓는 방법은 잘한 것 같지가 않다.

북한어는 맞춤법(철자, 자모 차례, 띄어쓰기) 따위에서 우리와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다. 사전 올림말에 분석표를 일절 쓰지 않는다. 우리가 이론으로 적는 북한어 ‘리론’ 및 그 복합어 ‘리론천문학’까지 13개 어휘를 ‘리’ 줄에다 풀이까지 거의 그대로 실고 있는데 이는 우리 이용자나 북한 이용자에게나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게 하려면 ‘이론’에서 북한의 ‘리론’과 그 풀이를 보여 줘야 하고, 북한 이용자를 위해서는 ‘리론’에서 남한의 ‘이론’과 그 풀이를 보여 줘야 한다.

북한 사전, 특히 『조선어대사전』에는 문체론적 어휘 가름으로 ‘글체’ 어휘와 ‘말체’ 어휘를 더러 보이고 있다. 그런데 말체 어휘 가운데는 일부 방언적인 어휘가 포함되어 있다. ‘계잘-싸-하다’(몹시 너절하고 지저분하다), ‘내-절

-로’(자기 스스로 또는 자신의 힘으로), ‘달래’(다른 까닭이 있어서) 따위에 ‘(말체)’ 표시를 주었다. 이런 것들은 방언과 문화어의 중간치에 해당하는 어휘라는 것을 중국 동포 학자에게 물어서 전해 들은 적이 있다. ‘가깝다’는 문화어로서 규범어이고, ‘가깝다’는 북한 전역에 두루 쓰는 공통 방언이라는 점에서 말체 어휘라 했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도 모르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위에 보인 ‘게잘-싸-하다’ 따위를 다루면서 ‘(구어체)’라 했는데 이는 잘못 짚은 것 같다.

그리고 1992년 북한 사전의 올림말과 풀이를 1999년 남한 사전에다 다루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북한에서 새로운 사전이 나올 때마다 다시 고쳐 반영하겠다는 것인지? 사전은 깊고 고치게 마련이다. 그동안 북한의 사전 편찬을 보면 대략 10년 안팎에 새 판의 사전들이 간행되었다.

북한어를 알고자 하는 이라면 북한어 사전을 직접 보리라 생각한다. 북한어를 꼭 보이고자 한다면 <남북한말 비교>나 아니면 순 북한어를 부록으로 다루는 방식이 좋았을 것 같다. 북한어 7만의 원고가 본문에 섞이어 더 복잡하게 되었고, 눈에 잘 띄지도 않는다. 사전 편찬에서도 요령은 중요하다.

주표제어와 부표제어 / 어근과 파생어 : 일반 언어사전에서 ‘주표제어’(기본 올림말)라면 말의 형태와 뜻과 쓰임새로 보아 기본이 되는 낱말 곧 기본 단어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사전에서는 “다른 표제어에 딸리지 않고 배열되는 말” 이라고 설정하여 일부 파생용언과 파생부사 따위의 경우, 그 어근을 주표제어로 삼았다. 낱말을 기본 단위로 하는 일반 언어사전에서 비자립 형태소인 거북-, 핑장-, 대단-, 따뜻-, 착-(‘착-하다’의 어근) / 취-(‘취하다’의 어근), 택-(‘택하다’의 어근) 같은 어근들을 주표제어로 삼는 것은 이상하다.

핑장 핑장스럽다의 어근.

핑장-하다 {형} ① 풀이. ② 풀이.

핑장-히 {부} ① ⇨ 핑장하다①. ② ⇨ 핑장하다②.

굉장-스럽다 {형} 훌륭하거나 대단한 데가 있다.

굉장-스레 {부} ⇨ 굉장스럽다.

[주] ‘굉장-스럽다, 굉장-스레’ 같은 말은 표준말 사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따뜻 따뜻하다의 어근.

따뜻-이 {부} ① ⇨ 따뜻하다①. ② ⇨ 따뜻하다②.

따뜻-하다 {형} ① 풀이. ② 풀이.

따뜻한 구름 ((지리)) 온도가 평균 이상 높은 구름.

이 사전에서 주표제어로 다룬 어근 ‘굉장’은 낱말 이하의 형태소로 ‘굉장-하다’의 어근뿐만 아니라 ‘굉장-히, 굉장-스럽다’의 어근이기도 하다. 중심 표제어로는 ‘굉장-하다’이다. 그런데 ‘굉장-하다, 굉장-히’를 부표제어로 다루고, ‘굉장-스럽다’는 주표제어로 다루었다. ‘~스럽다’ 형용사를 ‘~하다’ 형용사보다 오히려 격을 높였다고나 할까. 또 ‘따뜻-하다’는 부표제어로 다루면서 관용구인 ‘따뜻한 구름’은 주표제어로 다루었다.

어근이나 어근 단어 또는 접사 따위의 기본 형태소를 중심으로 편찬, 배열하는 사전이라면 그 파생어나 합성어 및 관용구들을 모두 그 그늘에 배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조어법 사전이나 형태소 사전이라 할 수 있는 특수사전의 경우이다. 일부 파생용언과 파생부사 따위만 그런 식으로 다루다 보니 전체 체계가 서지 않는다.

부사의 풀이는 생략하고 일일이 형용사 풀이를 참고하라는 식으로 기대어 놓았다. 되도록이면 풀이 따위에 생략이 없어야 하는 것이 대사전이다.

필자는 『한국어 전자사전』 편찬에서 파생어의 어근을 설정하되 이렇게 처리해 보았다. ‘고약’의 경우이다.

고약 {어근} (파생) 고약-스럽다. 고약-스레. 고약-하다. 고약-히.

[주] ‘고약’을 처음에는 어근으로 다루었다가 나중에 명사로 보완했다.

고약 {명} 도리에 벗어난 나쁜 성질이나 행동 따위. *그것이 고약을 그렇게

부리더니 필경 내 집을 망하여 놓는구나. <이인직: 치악산> *고약 떨지 마라. <방송에서>(’99. 12.) (파생) 고약-스럽다. 고약-스레. 고약-하다. 고약-히. **고약-스럽다** {형} 고약한 데가 있다. *날씨가 고약스럽다. *성미 한 번 고약스럽구나. (부사) 고약-스레. (어근) 고약.

고약-스레 {부} 고약스럽게. (어근) 고약-스럽(다).

고약-하다 {형}(여불) 풀이 다섯 갈래와 보기글. (부사) 고약-히. (어근) 고약.

고약-히 {부} 고약하게. (어근) 고약.

[주] 어근 ‘고약’에서 그 파생 어휘를 모두 보이고, 또한 각 파생어들에는 그 어근을 보여 참고하게 하고 모두를 기본 올림말 자리에 차례대로 배열하였다.

주표제어와 부표제어 다루기에서, ‘-거리다/-대다’, ‘-되다, -이/-히’, ‘-이다, -적’, ‘-하다’가 붙는 파생어들은 부표제어로 다루고, 비슷한 수준의 ‘-답다’, ‘-롭다’, ‘-스럽다’, ‘-뜨리다/-트리다’ 따위가 붙는 파생어들은 주표제어로 다룬 것도 이상하다. 그런데 ‘거짓-되다, 참-되다’는 주표제어로 다루고 ‘잘-되다, 잘-하다’ 따위는 부표제어로 다루었다. 또 ‘잘-해야(부)’는 주표제어로 다루었다.

보조용언 ‘아니-하다’는 주표제어, ‘못-하다’는 부표제어로 다루었다.

일관성이 없고 혼란스럽다. 이렇게 올림말 자리가 일정하지 않으니 찾아보기에도 불편하다. ‘취하다’를 ‘취’의 그늘에서, ‘택하다’는 ‘택’의 그늘에서 찾아야 한다. 한자 어근 ‘취’와 ‘택’이 과연 한국어 사전에서 주표제어라 할 수 있을까?

합성어와 관용구 : ‘거주-성명{명}’은 합성어이고 ‘거주^신고, 거주^제한, 거주^환경’ 따위는 관용구인지 관용구도 아닌 다른 무엇인지 그 처리의 기준을 모르겠다.

진력(盡力) {명} 있는 힘을 다함. (용례) 진력을 다하다.

진력-하다 {동} ⇨ 진력.

진력을 빼다 {관용} 풀이.

진력-나다 {동} 풀이.

진력-내다 {동} 풀이.

‘진력을 다하다’라는 보기글은 잘못 쓴 표현이다. ‘진력을 하다’나 ‘힘을 다하다’이다. 관용구 ‘진력을 빼다’를 ‘진력-하다’ 다음에 두는 까닭은 무엇일까? 또 여기서는 관용구를, 앞에서 주표제어로 다룬 ‘따뜻한 구름((지리))’과는 달리, 부표제어로 다루고 있다. 합성어 ‘진력-나다, 진력-내다’ 만 인정하고 관용구 ‘진력이 나다, 진력을 내다’는 다루지 않았으니 보완돼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합성어 및 관련 관용구 처리에 미비한 예는 적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3. 맞춤법과 관련한 문제

혼란스러운 개정은 발전이 아니고 오히려 부담이다. 새 맞춤법의 ‘사이사 적기’나 ‘개구리(〈개굴개굴), 피꼬리(〈피꿀피꿀), 매미(〈맴맴), 뼈꾸기(〈뼈꼭뼈꼭)’ 따위와는 달리, ‘오뚝이(〈오뚝오뚝), 싹싹이(〈싹싹), 꿀꿀이(〈꿀꿀)’ 따위로 적게 한 것이나, 새 표준말의 ‘-쟁이/-장이’ 따위의 문제는 오히려 혼란을 일으킨 대표적인 보기들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런 규정 문제를 재론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사전을 편찬해 보면 그 불합리한 점들이 생생하게 드러나게 마련이다. 이 사전 올림말 적기에서 몇 가지만 짚어 보기로 한다.

-즈-거리다 → -스-거리다 : ‘거칫-거리다, 구깃-거리다, 까칫-거리다, 머뭇-거리다, 할깃-거리다, 흘깃-거리다’로 적는다면, 다음 낱말들도 ㅅ 받침으로 정리돼야 할 것들이다.

*문칫-거리다(〈문치적-거리다) → 문칫-거리다.

*바빻-거리다(〈바비작-거리다) → 바빻-거리다.

*버룻-거리다(〈버르적-거리다) → 버룻-거리다.

*비빻-거리다(〈비비적-거리다) → 비빻-거리다.

|주| ‘머뭇-거리다’가 ‘머무적-거리다’의 준말로서 동의어일까? 동작의 느린 정도가 서로 차이 나는 말로, 풀이 표현을 달리하여 다루어도 될 것이다. 이 밖에, 의성의태어들에서 준말로 처리된 것들을 비롯하여 전체 준말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살포시와 살뭇-이 : <조지훈: 승무>(1939), <박종화: 청자부>(1940) 등에서 ‘살포시’로 적혀 교과서에 그대로 실려 널리 읽힌 말이다.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모으)오고 <조지훈: 승무>. *빛깔 오호 빛깔! / **살포시** 음영을 던진 가름한 빛깔아 <박종화: 청자부>.

그러나 다음 보기들에서 보면, ‘살뭇-이’가 ‘살포시’의 잘못이 아니다. (|참고| ‘뚜렛-하다’와 ‘뚜렛-이’, ‘살뭇-하다’(×)와 ‘살머시’.)

살뭇(*금시 감으려는 듯한 가름한 눈과 **살뭇** 아래로 처진 눈초리. <채만식: 병조와 영복이>)

살뭇-살뭇(*그 여자는 **살뭇살뭇** 건던 요조 신부의 걸음을 멈추고 <이정환: 깊은 산>.)

살뭇-이(*소녀의 왼 쪽 볼에 **살뭇이** 보조개가 꽤었다. <황순원: 소나기>)

살뭇-하다(*소녀는 마타리꽃을 양산 받듯이 해 보인다. 약간 상기된 얼굴에 **살뭇**한 보조개를 떠올리며 <황순원: 소나기>.)

살뭇-이(*눈에는 ... 정을 풍기는 너그러운 빛깔이 **살뭇이** 떠돌기 시작했다. <박종화: 다정불심>)

‘달갈-말이’는 제대로 되었으나 ‘두루-말이’ 『큰사전』(1992)는 ‘두루-마리’로 그냥 두고 있다. ‘콩다-콩, 콩덕-콩’ 『큰사전』을 ‘콩다콩, 콩더콩’의 잘못으로 다루었는데, 이 역시 『큰사전』을 따르는 것이 바른 적기라고 생각한다.

‘서양말+한국어/한자어’ 단어의 띄어쓰기 : 외래어의 인명, 지명 적기 원칙에서 외래어에 해, 섬, 강, 산 따위가 붙을 때에는 띄어 쓰도록 한 것(‘외래어 표기법’ 제4장 제3절) 때문에 혼란스럽다. 이에 따라 비슷한 조건의 말들이 띄어 쓰는 것, 붙여 쓰는 것(명사), 띄어도 되고 붙여도 되는 것들로 난립하게 되었다. 누가 이런 규정을 만들었을까? 한편에서는 사람의 성과 이름 까지도 붙여 쓰도록 하면서 이런 것은 띄어 쓰도록 하여 서양말을 돋보이게 하려고 한 것인지. 규정을 만들 때는 관련 사항 전체를 꿰뚫어볼 줄 알아야 한다.

- 띄어 쓴 것 : 카리브 해. 자바 섬. 나일 강. 몽블랑 산. 칼데라 호...
- 붙여 쓴 것 : 이슬람-교/이슬람-교도{명}. 아스팔트-길{명}. 아시아-면{명}. 미터-법/미터-원기{명}. 엑스-선/엑스선-관{명}. 서비스-업{명}. 네안데르탈-인{명}. 크로마뇽-인{명}. 오리온-자리{명}. 남-아메리카{명}. 북-아메리카{명}...
- 띄어도 되고 붙여도 되게 한 것: 그리스[^]어. 그리스[^]인. 자바[^]인. 카리브[^]족. 아시아[^]주. 이슬람[^]문화. 아스팔트[^]포장. 미터[^]조약. 엑스[^]광선. 서비스[^]산업. 알프스[^]산맥...

4. 표준말

오늘날 우리 표준말(토박이말)은 문교부 고시(제88-2호, 1988. 1. 19.) ‘표준어 규정’에 따른 ‘어휘 목록’과 문화부 공고(제36호, 1990. 9. 14.) ‘표준어 모음’의 표제어들이다. 겨우 2천여(?) 개 정도였다. 벌써 10년이 되는 데 이후 보완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1936년 <표준말 모음>은 6천여 개였고, 국어조사연구위원회(1970~1977?)가 마련한 것은 9천여 개로 기억된다. 이번 표준 대사전에서 얼마를 추가한 모양인데, 어떤 심의 과정을 거쳐 추가했는지 궁금하고, 그 목록을 따로 공개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서, 1988년 이후 맞춤법이나 표준말 제정 같은 일을 맡아보는 공식 기구가 어딘지도 궁금하다.

‘깃-들다’를 북한 사전에서처럼 ‘깃-들이다’와 다른 쓰임의 표준어로 다루고(필자는 동의어로 다루었음), ‘영글다=여물다’, ‘어두침침-하다=어둡침침하다’, ‘칭칭=친친’ 따위를 복수 표준어로 다룬 것과, ‘믿기다(믿어지다)’를 인정한 것은 이해가 간다. 언어 현실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에 상대되는 말 ‘아니-오’는 한 문장의 서술어로만 쓰이는 것이라 하여 ‘아니-요’로 따로 세운 것은 또 하나의 혼란을 부를 것 같다. 그 동안 써 온 감탄사 ‘아니-오’처럼 서술어로 된 감탄사는 많이 있다. ‘그렇-지, 글썄-올시다, 옛-네, 옛-다, 옛-소, 옛-습니다, 옳-다, 옳-소, 옳-아, 옳-지, 좋-아’ 등등. 그런데도 이를 갑자기 ‘아니-요’로 내세울 필요가 있을까?

‘까풀, 쌍-까풀’과 ‘꺼풀, 쌍-꺼풀’은 동의어라기보다 ‘깍질’과 ‘깍질’처럼 작은말과 큰말들이다. 새 표준말에는 말을 무리하게 몽뚱그려 잘못 짝 지은 것이 많았다. 그 결과 표준말로 두어야 할 말이 비표준말로 격하되기도 했다. 보기 하나만 들어 보인다. (○ 표준 / × 비표준).

까다-롭다(○) / 괴-까다롭다(○) / 꺾-까다롭다(○)

까닭-스럽다(× ‘까다롭다’의 잘못) / 괴-까닭스럽다(○ = 괴까다롭다) / 꺾-까닭스럽다 (× ‘꺾까다롭다’의 잘못)

가탈(○) / 가탈-스럽다(× ‘까다롭다’의 잘못) : 까탈(○) / 까탈-스럽다(× 까다롭다의 잘못)

한 마디로 까다롭게(어지럽게) 되어 있다. 표준말 심의는 말을 풍부하게 살리는 쪽으로 해야 한다. 그리하면 말의 정리도 잘 되게 마련이다.

‘까닭-스럽다=까다롭다’, ‘괴-/꺾-까닭스럽다=괴-/꺾-까다롭다’로 하고, ‘가탈-/까탈-스럽다’와는 짝짓지 말고 말맛(뉘앙스)을 살려 구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서 1988, 1990년의 표준말 자료는 표준 사전을 만드는 데에 문제가 많은 것이다.

‘사려-물다’를 ‘사리-물다’의 잘못으로 다루었다. 오히려 ‘사려-물다’의 용례가 더 많이 나타나며, 북한 문화어에서는 이미 ‘사려-물다’를 다루었다. 그

리고 ‘악물다’ 보다는 그 정도가 덜한 느낌을 주는데 ‘사리-물다’를 ‘악물다’와 같은 수준으로 풀이하였으니 잘된 처리 같지가 않다. 이는 말의 쓰임 빈도와 뜻 차이에 따른 표준말 선정에 참고해야 할 보기이다.

늘어놓는 잔소리나 푸념인 ‘사설’(작은말 ‘사설’ / 경상도 ‘새설’)의 [사:-] [새:-]는 긴소리이고, 늘어놓는 말이나 이야기인 ‘사설’(辭說)의 [사-]는 짧은소리이다.

‘귀-맛’(소리나 이야기를 듣고 느끼는 재미나 맛)과 ‘긋-맛[긋-]’(이야기를 듣고 느끼는 재미)은 복수 표준어로 하는 것인지, ‘그리스-터키^전쟁’과 ‘터키-그리스^전쟁’ 같은 술어도 복수 표준어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리핀’이 왜 운동 오락 용어인지…

여전히 ‘나래’는 ‘날개’의 방언으로, ‘떨구다’(눈물을 ~. 고개를 ~.), ‘발-자욱/자욱’, ‘오손-도손’, ‘우습-광-스럽다’(참고 객광-스럽다. 밍광-스럽다.), ‘짜짜-하다’ 따위는 ‘…의 잘못’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먹-거리’를 ‘먹을-거리’의 잘못으로 다룬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먹거리’는 한 독립 유공자가 수십 년 간 계몽하여 이미 언론 등에까지 널리 쓰게 되었고 여러 사전에 표준스런 말로 다루어 오는 말이다. ‘먹-거리’처럼, 동사 어근에 명사 따위가 결합한 합성어들로 ‘깁-낫’, ‘누비-옷’, ‘덮-밥’, ‘먹-보’, ‘먹-성’, ‘익-반죽’, ‘입-성’, ‘잡-부채’, ‘잡-의자’, ‘잡-칼’, ‘호비-칼’ 따위가 있다. ‘먹-거리’를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다.

‘떨-구-다’(떨어뜨리다의 잘못) 따위에서 보듯 ‘…의 잘못’으로 다룬 비표준어와 ‘…의 방언’이라 한 것과의 구분은 또한 아리송하다.

‘북경(우리 한자음)과 베이징’, ‘상해(우리 한자음)와 상하이’는 인정되고, ‘광동-성’은 ‘광동 성’의 잘못, ‘북건-성’은 ‘푸젠 성’의 잘못으로 하는 것이 표준일까?

‘한자어 어근-하다/-되다 동사’ : 가승-하다(加升-)/가승-되다, 가영-하다, 가일과-하다/가일과-되다, 가일년-하다, 가현-하다(*부처가 ~?), 강설-하다(눈 내리다), 강우-하다(비 내리다), … 의례-하다(依例-)/의전례-하다,

... 따위가 표준어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쓰고 있는 단어들일까?

5. 어원 정보

어원 정보라면 고유어의 형태 변천에 관한 것, 한자말과 외래어의 원어 밝히기 등이 포함된다. 한자와 외래어 글자는 올림말 다음에 제시하고, 고유어 어원과 로마자 머리 글자로 된 준말의 어원 정보는 뜻풀이 뒤 맨 끝에 제시했다. 또 산스크리트에서 한자를 거쳐 들어온 불교 용어 같은 경우, 한자는 올림말 옆에 두고 원어인 산스크리트는 풀이 맨 뒤에 두었으니 어원 정보를 흠어 놓은 셈이다. 가사(袈裟){명}((불교)) … (<<산kasaya). 달마(達磨){명}((불교)) … (<<범dharma). 어원 정보는 일괄 올림말 가까운 자리에 보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편찬에서 한 가지 분야를 한자리에서 보이지 않고 이곳저곳에 흠어 놓는 것은 참고하기에 불편하다. 어원 글자 가운데 취음 한자를 가려내는 것도 어원 밝히기의 한 가지다. 옛 문헌에 고유어가 한자로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어원 한자가 될 수는 없다. 오늘날에도 교수나 칼럼니스트들이 잘못 쓰거나 잘못 대어 쓰는 한자(어원)들이 있다. 먼 훗날 이런 문헌들을 어원의 근거 자료로 받아들여야 할까를 생각해 보면 알 일이다. 어원은 정설로 인정되는 것만을 다루는 원칙으로 나가는 것이 말을 덜 어지럽힌다고 본다.

‘chaos, cosmos’ 처럼 영어로 적고 그리스어로 밝힌 것들도 바로잡아야 할 것들이다.

고유명사 특히 서양 지명에 언어 이름을 밝히지 않다 보니, ‘스페인’(영어)과 ‘에스파냐’(에스파냐어), ‘핀란드’(영어)와 ‘수오미’(핀란드어)에서처럼 원어 지명에 이해를 돕지 못하고 있다.

6. 문법 정보

문법 정보에는 품사 표시, 활용, 문형 정보 및 쓰임의 제약 따위에 관한

설명이 포함된다. 보조용언, 의존명사 따위는 쓰임의 관련 정보를 제시하면 서도 품사 표지를 주고, 동사의 자동사와 타동사는 문형 정보를 제시했다 하여 품사 표지를 주지 않은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또한 시각적으로도 파악하기에 무척 힘들다. ‘가다’의 경우, 뭉뚱그려 생각하면 한 낱말이지만(이 대사전은 한 낱말로 다루었다), 문법적 기능이나 의미 특성으로 보면 자동사, 타동사 및 보조동사의 세 낱말이라 할 수 있다. 컴퓨터가 이 대사전에서 자동사나 타동사를 어떻게 가려낼지 궁금하다.

7. 뜻풀이

사전 편찬에서 중심 부분은 뜻풀이다. 뜻풀이는 격격한 논설이나 논문에서처럼 긴 표현으로써가 아니라 약 20~30자 안팎의 간결하고 쉬운 문장으로 뜻바탕의 속살을 드러내야 한다. 새로 편찬하는 사전에서는 기존 사전에 미처 다루지 못한 새 뜻갈래를 더하고 풀이하는 일이 또한 중요하다. 기존 사전에서 다룬 새 어휘나 몇몇 작가 어휘집의 풀이를 베끼는 수준이어서는 안 되고, 그야말로 독창적으로 뜻갈래를 밝혀 다룬 것이 많아야 그 노력이 인정될 것이다.

이 대사전 편찬에는 5천만 어절의 말뭉치 자료를 이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새 말(일반어)의 추가나 새 뜻갈래의 보완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다. 사전 편찬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새로운 뜻풀이를 더하는 일이다. 기존 사전의 풀이에 표현 정도를 달리하기는 쉬우나 새 뜻바탕을 파악하고 표현하는 일은 쉽지가 않다. 기존의 풀이 표현을 잘못 파악하고 군살이나 덧붙이다가는 선배 편찬자들이 이룬 뜻풀이에 못 미치는 수도 있다.

뜻풀이는 품사의 특성에 따라 표현도 그렇게 뒤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많다’를 “... 일정한 수준에 넘다”로 풀이한 것은 형용사를 동사로 풀이한 것이다.

‘가깝다’를 “어떤 수치에 근접하다”로 풀이한 것은 쉬운 말을 어렵게 풀이

하였고, 또 형용사를 동사로 풀이한 것이다.

‘남다’를 “들인 밑천이나 제 값어치보다 얻는 것이 많다”로 풀이한 것은 동사를 형용사로 풀이한 것이다.

형용사 ‘안-되다’(그것 참 안됐군. 얼굴이 많이 안됐구나.)에 자동사 풀이 세 가지가 섞여 있다. “장사가 잘 안된다”. “자식이 안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다”. “우리 중 안되어도 세 명은 합격할 것 같다”. 이러한 ‘안-되다’를 합성어로 인정해야 할까? 꼭 그렇다면 자동사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되는(될) 일과 안(아니) 되는(될) 일’, ‘합격이 된 사람과 안(아니) 된 사람’, 또는 ‘할 말과 안(아니) 할 말’, ‘하겠다는 사람과 안(아니) 하겠다’는 사람에서처럼 두 낱말로 다루던 것인데, 이를 형용사 ‘안-되다’에 섞어 넣어 또 혼란을 빚게 하였다. 형용사 ‘못-되다’에도 마찬가지다.

앞서, 주표제어와 부표제어에서 본 대로, 파생부사의 풀이는 생략하고 일일이 형용사 풀이를 참고하라는 식으로 기대어 놓았다. 단어 형태(‘~이, ~히, ~스레’ 파생어 형태)보다는 활용형인 ‘~게’ 형태가 풀이에 가까운 표현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굉장-히’를 굉장하게, ‘~스레’ 부사는 ‘~스럽게’ 식으로 간단히(몽땅그러) 풀이하던 것이 종래 방식이었다. 그런데 이 사전처럼 부사의 풀이를 일일이 형용사에 가서 보라는 식은 풀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되도록이면 풀이 따위에 생략이 없어야 하는 것이 대사전이다.

‘그 어떤 것’을 나타내는 지시대명사 ‘아무-것’을 명사로 다루면서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어떤 것 일체.”라 했다. 여기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은 굳이 더기 표현이고, 문제는 ‘일체’란 표현이 이상하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큰소리만 쳤다.” “아무것이나 닥치는 대로 일했다.” 에서, ‘아무것’을 ‘어떤 것’ 일체로 생각할 수 있을까. ‘아무-것’은 그렇다 치고, 기존 사전들에 다루어 오는 ‘아무-데’나 ‘아무-때’는 왜 다루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방), (옛), (북)을 표시하고 또 ‘… 의 방언’, ‘… 의 옛말’, ‘… 의 북한어’로 보인 것은 이중의 수고였다.

8. 용례

5천만 어절 말뭉치를 이용하여 용례를 많이 보인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의 뜻과 쓰임새가 부적절한 것이 없지 않다.

‘가하다’¹ ②③의 용례에, “*집 걱정 말고 시험 공부에 박차를 가해라.” “*국민들은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는 데에 박차를 가하기를 바란다.”는 ‘관용구 박차를 가하다’의 용례라야 적합하다. 또 ‘박차(拍車)’에서도 “② 일을 촉진하려고 더하는 힘.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다.”도 관용구 ‘박차를 가하다’의 용례라야 한다. ‘박차’ 자체가 ‘더하는 힘’이 아니다.

‘물꼬 ② 일의 시작’의 용례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다.”도 ‘일의 시작’을 뜻한다는 갈래의 용례가 아니라, 관용구 ‘물꼬를 트다’를 다루어 그 용례로 적용할 것이었다.

‘뺨-지르다 ① 버티고 서다.’의 용례에 이런 것이 있다. “*이질 배앓이가 생겼던지 어쨌든지 자꾸 뺨지르면서 울어 대곤 하여, 그때마다 약방으로 가서 약을 사 먹이곤 했던 것이었다.” 앞뒤 문맥은 모르겠으나 이 인용문에서 ‘버티고 서다’의 뜻은 좀처럼 떠오르지 않는다.

또한 인용글의 비표준스런 문장이나 모호한 표현도 문제다.

‘가하다’¹ ①의 용례에, “*원금에 이자를 가해서 갚아라.” “*한 폰도 집 안에 가한 적이 없으면서 자기 뭇을 달라니!” 하는 것이 있다. 이런 ‘가하다’의 쓰임새가 오늘날의 표준스런 표현들일까.

‘들다’¹의 용례에 이런 것들이 있다. “*고향 집에 도착해서도 아무 말 없이 앞장을 선 어머니가 안채가 있는 중문으로 들지 않고 뒤꼍으로 드는 걸 보고 그 가 묻는다.” 여기 나오는 사람은 둘인지 셋인지, 또 ‘그’는 누구인지 모르겠다. “*그 방은 그늘이 든다. // *하숙집에 든 지도 벌써 삼 년이 지났다.” 여기 ‘그늘’은 무슨 그늘이며, 삼 년이나 묵어 오는 하숙생활을 이렇게 표현하는지 의문스럽다.

문예 작품에 쓰인 글이라는 것만으로 그대로 다 규범적인 글이 될 수는 없다. 바른 인용문을 찾고 가려내는 일이야말로 규범을 내세우는 사전 편찬자의 일 몫이다.

9. 관련 어휘 정보

관련 어휘로 본말, 준말, 비슷한말, 반대말, 높임말, 낮춤말, 참고 어휘 등을 뜻풀이 뒤에 글자 약호로 보이면서, 유독 같은말(동의어)은 = 표로 보인 것은 좀스러워 보인다. 역시 편찬에서 같은 분야를 같은 수준의 요령으로 처리해야지 이렇게 저렇게 형식을 달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운재 선생은 1930년대에 ‘같은말’을 용어로 쓴 적이 있다.

의성의태어의 관련어 보이기에서 ‘작은말, 큰말’과 ‘여린말, 센말, 거센말’들로 보이지 않고, 북한 사전에서처럼 뭉뚱그려 참고로 보였다. 이제 그 용어들은 쓰지 않기로 하는 것일까?

‘마침-표¹(언어), 마침-표²(음악)’는 두 올림말로 다루면서, ‘중지-부’에 서는 한 올림말로 다룬 것도 형평에 맞지 않다.

Ⅲ. 맺 음 말

이 사전은 ‘표준 국어 대사전’이라기보다 ‘종합 어휘 대사전’이란 이름이 걸맞겠다. 기존의 국어사전들과 전문술어사전, 백과사전 및 서로 다른 말글 체계의 북한어까지 한데 모아 놓은 사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사전임을 아홉 가지 분야에 걸쳐 간략히 살펴보았다.

사전 편찬에도 연륜이 쌓여야 한다. 8년 동안에 50여 만 말의 대사전을 이루어 낸 것은 놀랍다. 성급한 욕심에는 후유증이 따르게 마련이다. 다시 우리 언어사전의 면모와 내용을 갈다듬는 일에 정진하기를 바란다.